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의 매개효과

고 은 영 최 바 을 이 소 연 이 은 지 서 영 석[†]

연세대학교

자살사고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 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과 자살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모형을 가설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서울, 경기 등 7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N = 41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가설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우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심리적 극통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비난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비난은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 극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살 행동 관련 이론 및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비난, 심리적 극통, 자살사고, 대학생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수년째 일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자살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자살률은 5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자살률 또한 10만 명당 28.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특히, 2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통계청, 2011), 미래를 꿈꾸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야 할 20대 청년층의 자살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층이 무엇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살 위험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우울과 무망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진, 2009; 김현순, 김병석, 2008; 손정남, 2007; 여환홍, 백용매, 2010; 이현지, 김명희, 2007).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우울과 무망은 자살사고 변량의 16-43%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및 무망 이외에도 자살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이 더 존재함을 시사하였다(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비슷한 맥락에서, 우울이나 무망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부각한 나머지 성격이나 환경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 바 있다(Hirschfeld & Blumenthal, 1986; Joffe & Regan, 1989). 이런 비판을 반영하여 우울과 무망 이외에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는데, 충동성(하정희,

안성희, 2008), 경계선적 성격 특성(여환홍, 백용매, 2010), 심리적 극통(최바울 등,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유상미, 이승연, 2008) 등이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 관련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살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예를 들어, Douglas(1967)는 자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에서 자살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 자살의 의미가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살 현상의 본질을 해석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aylor(1990) 또한 자살의 의미를 문화적 맥락에서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형민, 2010에서 재인용). 유독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자살 관련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변인들을 채택하여 자살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이나 무망 이외에도 최근 자살 관련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비난, 심리적 극통을 자살 위험요인으로 채택하고, 이 변인들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 구조모형으로 개념화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살 관련 현상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중심성(김의철, 박영신, 2004)과 체면 중시(최상진, 김기범, 2000) 등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고유성을 ‘우리’라는 집단에 순응시키려는 집단주의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서구 문화보다 강하고(최인재, 최상진, 2002; 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의식하는 체면민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최상진, 김기범, 2000).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와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는 타인들로부터 애정과 호감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된다. 실제로 자살의 문화적 맥락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아시아 등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대인관계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Range et al., 1999; Shiang, 2000).

이런 맥락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Hewitt, Flett, & Weber, 1994)는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자살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기 위해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믿으며(Blatt, 1995), 평가를 두려워하고(Gilbert, Durrant, & McEwan, 2006), 타인이 부과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Hewitt & Flett, 1993). 이론가들에 따르면, 수용 받고 싶은 자녀의 요구에 대해 부모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합리하고 비판적인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포함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형성된다(Barrow & Moore, 1983; Hamachek, 1978). 한편, 서양에서 수행된 실증적인 연구들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사

고, 자살위험, 자살의도,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Dean & Range, 1996; Dean & Range, 1999; Dean, Range, & Goggin, 1996; Enns, Cox, & Inayatulla, 2003; Hewitt, Flett, & Turnbull-Donovan, 1992; Hewitt, Newton, Flett, & Callander, 1997; Hewitt, Norton, Flett, Callander, & Cowan, 1998; Hunter & O'Connor, 2003; Kli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포함한 완벽주의 특성이 문화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왔다. 예를 들어, Chang(1998)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이 백인들보다 수행이나 실수를 더 염려하고 부모의 기대나 평가와 관련된 완벽주의 성향이 백인들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이 백인들보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anche, Gaudreau, & Miranda, 2012). 이는 부모 양육 등의 영향을 받는 개인차 변인이자 범문화적 특성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또한 사회문화적 완벽주의 특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포함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여환홍, 백용매, 2010; 최바울 등, 2011), 무망(최바울 등, 2011; Beevers & Miller, 2004), 심리적 극통(최바울 등,

2011)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욕구좌절과 심리적 극통을 매개로 자살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Flamenbaum & Holden, 2007), 사회적 무망(social hopelessness)을 통해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xborough et al., 2012). 그러나 국내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에 초점을 두고 두 변인 간 매개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도피이론을 근거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관련 변인들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Baumeister(1990)의 자살도피이론(Escape Theory of Suicide)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 및 심리적 고통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공해 준다. 자살도피이론에 따르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극도로 부정적인 의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커져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이나 노력의 결과물이 자신 및 타인의 기대나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인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물과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세 번째 단계로 진행되면, 스스로 세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신의 상태를 혐오스럽다고 지각하는데,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무능력하며, 매력이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도피하

기 위해 인지적 몰락, 즉 인지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려 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심리적인 고통과 혐오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자제력이 감소되고 결국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살사고 뿐 아니라 자기비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2010; Gilbert et al., 2006; Hewitt & Flett, 1993), 자기비난과 자살행동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nns et al., 2003; Farmer & Creed, 1986; Fazza & Page, 2003; Fehon, Grilo, & Martino, 2000). 더욱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등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을 매개로 폭식행동과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김정미, 2009; 손은정, 2010), 우울이나 불안이 자살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진, 2009; 김현순, 김병석, 2008; 손정남, 2007; 여환홍, 백용매, 2010; 이현지, 김명희, 2007; 최바울 등, 2011)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 변인 간 인과적 매개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 경로의 적합성을 경험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편, 자살도피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자살로 이어지는 여섯 단계 중 네 번째 단계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때 경험하는 고통은 개인의 통제력을 무력화하고 자살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게 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Shneidman(1993)은 이를 심리적 고통(psychache)이라고 칭하였다. 이렇듯 ‘심리적 고통’은 죄책감, 분노, 두려움, 공포, 불안, 외로움, 절망 등 부정적 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의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자살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자살 위험요인들은 심리적 고통을 통해 자살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Holden, Mehta, Cunningham과 Mcleod(2001)의 연구에서 심리적 고통은 무망과 자살징후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lamenbaum과 Holden(2007)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고통은 자살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경향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바울 등(2011)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고통은 우울 및 무망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자기비난과 심리적 고통, 자살사고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자기도피이론과, 심리적 고통이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다른 위험요인들의 영향력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Shneidman(1993)의 주장을 토대로, 자기비난이 심리적 고통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살도피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 및 심리적 고통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비난과 심리적 고통을 부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Flamenbaum과 Holden(2007)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욕구좌절과 심리적 고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연구결과들(Dean & Range, 1999; Dean et al., 1996; Hewitt et al., 1992; Hewitt et al., 1997)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비난과 심리적 고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비난을 부분 매개하여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Flamenbaum과 Holden(2007)의 연구결과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비난의 관계를 입증한 손은정(2010)의 연구결과,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비난 및 심리적 고통 간 인과적 관련성을 가정한 자기도피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비난이 심리적 고통을 부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자기비난과 자살사고의 관련성을 입증한 Enns 등(2003)의 연구, 자기비난이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가정하는 자살도피이론, 그리고 자살변인에 대한 심리적 고통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한 Shneidman(1993)의 주장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비난과 심리적 고통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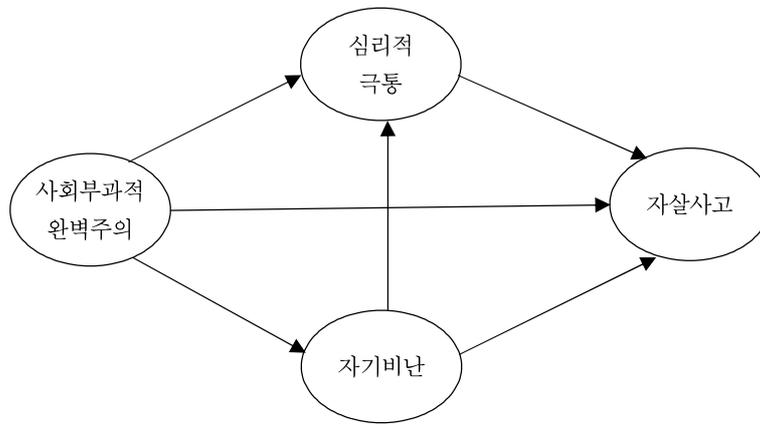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고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에 주목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명(12.5%). 공학계열 9명(2.2%), 사범계열 116명(27.8%), 예술계열 66명(15.8%), 의학 및 보건계열 135명(32.4%), 기타 1명(0.2%), 미기재 6명(1.4%)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방 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경북에 소재한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22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417명(남 153, 여 263, 미기재 1)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20세 ($SD = 3.28$)이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3명(19.9%), 2학년은 216명(51.8%), 3학년은 80명(19.2%), 4학년은 37명(8.9%), 미기재 1명(0.2%)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전공은 인문계열 20명(4.8%), 사회계열 12명(2.9%), 자연계열 5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and Fle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의 하위척도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HFMPs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등 세 가지 하위 척도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의 경우 2요인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요인 11문항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2요인은 각각 '타인의 높은 기대(Other's

High Expectation; OHE)' 6문항과 '조건적 수용(Conditional Acceptance; CA)'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mpbell과 Di Paula(2002)와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2009)의 연구를 토대로, '타인의 높은 기대'와 '조건적 수용'에 해당하는 11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타인의 높은 기대'는 중요 타인에게 대해 높은 기준이나 기대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드러내지 않더라도 매우 실망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조건적 수용'은 이러한 기준이나 기대에 따라 높은 성취를 보일 때 수용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oerber, Kempe와 Keogh(2008)의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 .61로 나타났으며, 김민선 등(2009)의 연구에서는 .72,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9와 .68로 각각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8이었다.

자기비난

자기비난을 측정하기 위해 Blatt, D'Afflitti와 Quinlan(1976)이 개발하고, 조재임(199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 문항 중 자기비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DEQ는 총 66문항으로 의존성, 자기비난, 효능감 등 세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많은 연구(예, 김정미, 2009; Taranis & Meyer, 2010)에서 사용된 '자기비난' 하위척도 22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난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자기비난은 죄책감, 내적 공허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관계 악화,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서 오는 불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진(2002)의 연구에서 반분 신뢰도는 .83, 4주 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심리적 극통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극통을 측정하기 위해 Holden 등(2001)이 Shneidman(1993)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심리적 극통 척도를 최바울 등(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자주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리적 극통 척도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측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내 심리적인 고통은 어떤 다른 신체적인 고통보다 심하다." 등이 있다. 내적합치도는 Holden 등(2001)의 연구에서는 .92였으며, 최바울 등(2011)의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자살사고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가 개발하고, 신민섭(1992)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자살사고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30문항 중 서미순(2005)이 중복되는 문항

을 제외하고 채택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자주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차라리 살아있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살을 할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조하와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였다.

측정변인 생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비난 척도와 심리적 극통 척도, 자살사고 척도는 여러 개의 문항이 한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이들 잠재변인에 대해 각각 세 개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인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은 표본이 충분히 클 때 일관적이고 점근효율적인 방법이다(배병렬, 2011).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높은 순서대로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부하량이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짝지어 세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이는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각 꾸러미가 해당 잠재변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Russel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는 전체 문항이 2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어 별도로 꾸러미를 제작하지 않았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Arbuckle, 2009)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11개의 측정변인들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비난, 심리적 극통, 자살사고 등 4개의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Hu와 Bentler(1999)의 제안에 따라 χ^2 값, Tucker-Levis Index(TLI: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Comparative Fit Index(CFI: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10 이하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뒤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팬텀변인은 AMOS를 사용하여 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할 때 각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가상 변인으로,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이다(배병렬, 2011; 홍세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것으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근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417)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가설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먼저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은 대체로 유의하였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 간 상관은 다른 변인들 간 상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모형 검증에 앞서, 11개의 측정변인들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비난, 심리적 극통, 자살사고 등 4개의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8, N = 417) = 98.77, p < .001$; CFI = .98; TLI = .98; RMSEA = .062(90% 신뢰구간 = .047-.077). 또한 모든 잠재변인이 해당 측정변인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설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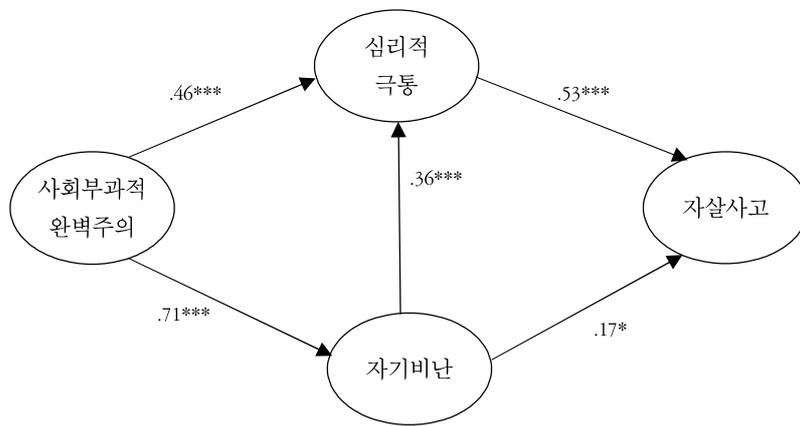
표 1. 측정변인의 변인 간 상관계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1. 타인기대	-	.37	.34	.32	.28	.38	.38	.40	.14	.16	.17	6	28	16.77	4.16	-0.10	-0.01
2. 조건적수용		-	.45	.44	.43	.42	.46	.45	.34	.34	.37	5	23	13.49	3.05	-0.05	-0.17
3. 비난1			-	.76	.74	.59	.58	.59	.49	.43	.43	7	45	24.95	6.74	-0.04	0.07
4. 비난2				-	.78	.55	.55	.54	.46	.41	.44	7	45	25.70	6.93	-0.29	-0.06
5. 비난3					-	.57	.55	.55	.45	.35	.38	10	50	30.23	7.17	-0.19	0.35
6. 극통1						-	.87	.88	.56	.50	.54	5	25	10.94	4.15	0.38	-0.41
7. 극통2							-	.86	.58	.57	.60	4	20	7.75	3.39	0.71	-0.20
8. 극통3								-	.56	.50	.54	4	20	8.90	3.82	0.47	-0.53
9. 자살1									-	.86	.86	7	35	12.27	5.70	1.03	0.21
10. 자살2										-	.90	6	25	8.76	4.10	1.49	1.16
11. 자살3											-	6	27	8.96	4.26	1.64	1.94

주. $N = 417$. 모든 상관계수는 .05 수준에서 유의함; 타인기대, 조건적수용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두 하위척도; 비난 1,2,3 = 자기비난 척도를 세 개의 꾸러미로 제작한 것; 극통 1,2,3 = 심리적 극통 척도를 세 개의 꾸러미로 제작한 것; 자살 1,2,3 = 자살사고 척도를 세 개의 꾸러미로 제작한 것

로 나타났다, $\chi^2(38, N = 417) = 98.77, p < .001$; CFI = .99; TLI = .98; RMSEA = .062(90% 신뢰구간 = .047-.077). 또한 가설모형은 자살사고 변량의 4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수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9, N = 417) = 98.83, p < .001$; CFI = .99; TLI = .98; RMSEA = .061(90% 신뢰구간 = .046-.076).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 N = 417) = 0.06, p > .05$.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수정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채택



* $p < .05$.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의 이중매개 모형(최종모형).

표 2.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 효과	95%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비난 →	자살사고	.30*	.03	.76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극통 →	자살사고	.61***	.31	1.25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비난 →	심리적 극통	.48**	.24	.70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비난 →	심리적 극통 →	.34**	.15	.55
	자기비난 →	심리적 극통 →	.16*	.06	.29

주. $N = 417$. * $p < .05$. ** $p < .01$. *** $p < .0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비표준화 수치임.

하였다(그림 2).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든 간접경로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우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비난을 통해 심리적 극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극통에 대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극통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비난이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자기비난은 심리적 극통을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살사고에 대한 자기비난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비난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극통이 부분 매개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을 완전 매개하여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417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은 자살사고 변량의 40.2%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자살 위험요인들이 자살사고 변량의 16-43%를 설명한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설명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살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과 무망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설명량을 나타낸 것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비난 및 심리적 극통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자살사고를 설명한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연구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욕구와 심리적 극통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Flamenbaum과 Holden(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무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했던 Roxborough 등(2012)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연구마다 설정한 매개변수들의 수 또는 그 영향력이 서로 달라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연구마다 연구대상이 서로 달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위험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들이 서로 달라서일 수도 있다.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종류 및 수를 동일하게 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비난과 심리적 극통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Baumeister (1990)의 자살도피이론(Escape Theory of Suicide)을 지지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어떻게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준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자신을 비난하는 인지적 해석 과정을 거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결국 자살사고를 촉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살위험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Dean & Range, 1996, 1999; Dean et al., 1996; Enns et al., 2003; Hewitt et al., 1992, 1997; Hunter & O'Connor, 2003; Klibert et al., 2005)에 대해 왜 이 두 변인 간 관련성이 높은지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비난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Flamenbaum과 Holden(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기비난과 심리적 고통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이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겨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함을 시사한다. 극심한 취업난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목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변의 기대나 요구만큼 성취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부정적 자기관과 정서적 고통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비난은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비난과 자살변인 간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나(Enns et al., 2003; Farmer & Creed, 1986; Fazza & Page, 2003; Fehon et al., 2000), 이 두 변인이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즉, 스스로를 비난할수록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비난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결국 자살하려는 의도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기도피이론과 부합할 뿐 아니라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을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서 찾았던 Shneidman(1993)의 주장과 이를 입증한 최근 연구결과(최바울 등, 2011; Flamenbaum & Holden, 2007)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자신을 비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할 경우,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자살 관련 연구와 상담 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 관련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같이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들을 채택하여 자살 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실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의 경우 이들의 자기비난에 개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살사고

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자기비난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기준이나 집단의 가치에 부합하려는 완벽주의 성향 그 자체보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자기비난을 줄이는 데 개입의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비마음훈련(Compassionate Mind Training: CMT)이나 자기위로(self-soothing) 등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비난하는 패턴의 기원 및 양상을 파악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비로운 심상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Gilbert & Procter, 2006; Kelly, Zuroff, & Shapira, 2009).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고통을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다루고 이에 적절히 개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비난은 심리적 고통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을 고려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나 자살위험군을 선별하여 개입할 때, 이들의 심리적 고통 수준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심리적 고통을 자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정한 Shneidman(1996)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위기 상황에 처한 내담자에 대해서는 일반 내담자와는 다른 상담목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심리적 동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유아기적 특성과 의존적 욕구, 압박감 및 무망감 등을 최대한 수용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동요를 감소시킬 필

요가 있다. 심리적인 동요가 충분히 감소되었을 경우에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자살사고 이외에 내담자가 지닌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여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학상담소와 학교 당국은 내담자나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 수준을 확인하여 자살위험성을 평가하고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접수면접 시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평가함으로써 자살위험성을 진단하고, 필요 시 위기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당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고통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한 후 전문적인 상담을 권하거나,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변인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Baumeister(1990)의 자살도피이론(Escape Theory of Suicide)을 토대로 자기비난과 심리적 고통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수 간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변인들의 관계를 살핀 횡단연구로 설계되었다. 비록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변인 간 인과적 관련성을 설정했지만, 변인들 간에 양방향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인과적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자살사고를 비롯한 자살 관련 행동이 특정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적

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구에서는 중단설계(예, 교차지연 설계)를 통해 자살의 위험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자살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채택하여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체면민감성, 자기침묵, 도움추구와 같이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들을 추가로 채택하여 자살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몇 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다른 연령대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구분 없이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효과가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2배 가량 높고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했을 때(통계청, 2011),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살의 위험요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완충시키면서 자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예, 사회적 지지)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그 영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학업지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39-56.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정미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05-225.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8), 413-436.
-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김현진 (2002).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민 (2010). 자살, 차악의 선택. 서울: 이학사.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미순 (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10).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난,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 료, 22(4), 1103-1122.
- 손정남 (2007).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판별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6(3), 267-275.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47-1066.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19-136.
-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및 성격*, 14(1), 185-202.
- 최인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 통계청 (2011).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 홍세희 (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모형. *에스앤엠 리서치 그룹*.
- Arbuckle, J. L. (2009). *Amos 18 user's guide*. Crawfordville, FL: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 Barrow, J. C., & Moore, C. A. (1983). Group intervention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10), 612-615.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eevers, C. G., & Miller, I. W. (2004). Perfectionism, cognitive bias, and hopelessness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2), 126-137.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4), 383-389.
- Campbell, J. C.,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181-1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s,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in a college population: Does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3), 237-254.
- Dean, P. J., & Range, L. M. (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and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0*(4), 415-424.
- Dean, P. J., & Range, L. M. (1999). Testing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an outpatient clinical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6), 561-572.
- Dean, P. J., & Range, L. M., & Goggin, W. (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and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l that includes perfectionism.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ur, 26*(2), 181-186.
- Douglas, J. D. (1967). *The social meanings of suici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nns, M. W., Cox, B. J., & Inayatulla, M. (2003). Personality predictors of outcome for adolescents hospitalized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6), 720-727.
- Farmer, R., & Creed, F. (1986). Hostility and deliberate self-poisoning.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9*(4), 311-316.
- Fazza, N., & Page, S. (2003).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2), 172-185.
- Fehon, D. C., Grilo, C. M., & Martino, S. (2000). A comparison of dependent and self-critically depressed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93-106.
- Flamenbaum, R., & Holden, R. R. (2007). Psychache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uicida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51-61.
- Franche, V., Gaudreau, P., & Miranda, D. (2012). The 2x2 model of perfectionism: A comparison across Asian Canadians and European Canadi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Online first publication. doi: 10.1037/a0028992.
- Gilbert, P., Durrant, R., & McEwan, K. (2006).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forms and functions of self-criticism, and sensitivity to put-dow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7), 1299-1308.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6), 353-379.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 Flett, G. L. & Turnbull-Donovan, W. (1992). Perfectionism and suicide potential.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181-190.
- Hewitt, P. L., & Flett, G. L. & Weber, C.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5), 439-460.
- Hewitt, P. L., Newton, J., Flett, G. L., & Callander, I. (1997).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Clinical Psychology, 25*(2), 95-101.
- Hewitt, P. L., Norton, G. R., Flett, G. L., Callander, L., & Cowan, T.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hopelessness, and attempted suicide in a sample of alcoholic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ur, 28*(4), 395-406.
- Hirschfeld, R. M., & Blumenthal, S. J. (1986). Personality, life events, and other psychosocial factors in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In G. L. Klerman (Ed.), *Suicide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p.215-25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olden, R. R., Mehta, K., Cunningham, E. J., & McLeod, L. D. (2001).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cale of psychache.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3*(4), 224-232.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nter, E. C., & O'Conner, R. C. (2003). Hopelessness and future thinking in parasuicide: The role of perfectionism.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4), 355-365.
- Joffe, R. T., & Regan, J. P. (1989). Personality and depression: A further evaluatio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3*(3-4), 299-301.
- Kelly, A. C., Zuroff, D. C., & Shapira, L. B. (2009). Soothing oneself and resisting self-attacks: The treatment of two intrapersonal deficits in depression vulner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3), 301-313.
- Klibert, J. J., Langhinrichsen-Rohling,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2), 141-156.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3), 269-298.
-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Range, L. M., Leach, M. M., McIntyre D., Posey-Deters, P. B., Marion, M. S., Kovac, S. H., Banos, J. H., & Vigil, J. (1999).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uicid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4), 413-430.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Odessa, FL: Psychological

- Assessment Resources.
- Roxborough, H. M., Hewitt, P. L., Kaldas, J., Flett, G., Caelian, C. M., Sherry, S., & Sherry, D. L. (2012).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icide in youth: A test of the perfectionism social disconnection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2*(2), 217-233.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iang, J. (2000). Considering cultural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study of suicide. In R. W. Maris, S. S. Canetto, J. L. McIntosh, & M. M. Silverman (Eds.), *Review of suicidology* (pp. 226-241). New York: Guilford Press.
- Shneidman, E. S. (1993). Suicide as psychac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1*(3), 145-147.
- Shneidman, E. S. (1996). Psychotherapy with suicidal patients. In J. T. Maltzberger, & M. J. Goldblatt, (M. D.), *Essential papers on suicide* (pp.417-426). N. Y.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oeber, J., Kempe, T., & Keogh, E. J. (2008). Facets of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eling of pride, shame, and guilt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7), 1506-1516.
- Taylor, S. (1990). Suicide, Durkheim, and Sociology, In D. Lester (Ed.), *Current concepts of suicide* Philadelphia: The Charles Press.
- Taranis, L., & Meyer, C. (2010). Perfectionism and compulsive exercise among female exercisers: High personal standards or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1), 3-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Sage.
- 원 고 접 수 일 : 2012. 6. 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8. 8
게 재 결 정 일 : 2012. 9. 3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riticism and Psychache

Eun Young Koh Baole Choi So Yeon Rhie Eun Ji Lee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Suicidal ideation has been theorized to be a result of combined effects of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basis of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proposed by Baumeister and prior research findings, the current study hypothesiz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ould affect suicidal ideation through self-criticism and psychac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tilized with data from 417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Results showed that the fully mediated model without the direct link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exhibited good fit to the data.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link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sychache was partially mediated by self-criticism, and that the link between self-criticism and suicidal ideation was partially mediated through psychac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elf-criticism, psychache, suicidal ideation, college students*